



목 차

	모빌리티 동향	11
	- 보행자 감지 AEB 장착하면 보행자 사고 사망자 33.9% 감소 가능	11
	- 현대차, 中 전용 전기차 ‘드라이브GPT’ 탑재..테슬라 잡는다	12
	- 경북 ‘미니 전기차’, 유럽·동남아 골목길 정조준	13
	- “콜당 3천원 드려요” 우버 택시 치킨게임 시동...불안한 토종 플랫폼	14
	- 수소특화단지로 동해·삼척과 포항을 지정, 수소산업 성장거점으로 육성	15
	- 철도·항공·버스 등 검색부터 결제까지 ‘K-MaaS’로 한 번에	16
	- 민간에서도 사고기록정보 분석 가능해진다	17
	-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응급실 손상 환자 5명 중 2명은 15-24세, 대부분(75.0%) 헬멧 미착용	18
	- ‘판교~광화문 15분 시대’로.. 2025년 드론택시가 한강 누빈다	19
	- ‘하늘 나는 택시 현실화’ 두바이, 에어택시 정류장 건설 시작	20





보행자 감지 AEB 장착하면 보행자 사고 사망자 33.9% 감소 가능

-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의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 및 AEB*가 장착된 차량의 보행자 사고 예방 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

* AEB(Autonomous Emergency Braking, 자동비상제동장치): 자동차나 보행자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제동해 사고 예방

-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AEB가 장착된 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 대비 사고 건수는 9.5%, 사망자는 33.9% 낮은 것으로 나타남

- 보행자 감지 AEB가 장착된 두 차량(A, B차량)으로 보행자 사망률이 높은 사고유형에 대해 실시한 재현 시험*에서, AEB 장착 차량 사이에도 보행자 사고 예방 성능에 차이가 존재

- A차량과 B차량 모두 8km/h의 속도로 후진 시, 차량 뒤쪽에 있는 보행자를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
- A차량은 성인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발생하는 사고를 40km/h까지, B차량은 60km/h까지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보행자가 어린이일 경우 각각 25km/h, 40km/h까지 예방
- 대향 보행자* 사고의 경우, A차량은 좌·우회전 시에는 보행자 사고 예방 성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B차량은 좌회전시 20km/h, 우회전시 10km/h까지 보행자 사고를 예방

* 대향 보행자: 차량과 반대 방향으로 보행 중인 보행자

<전진중 보행자 사고 예방 성능 평가 결과>

시험정보		시험 속도(km/h)										
시험 유형	차량	10	15	20	25	30	35	40	45	50	55	60
횡단	성인	A	[Accident Prevention]									
		B	[Accident Prevention]									
	어린이	A	[Accident Prevention]									
		B	[Accident Prevention]									
중단(성인)	A	[Accident Prevention]										
	B	[Accident Prevention]										
대향(성인)	좌회전	[Evaluation Not Applicable]										
	우회전	[Evaluation Not Applicable]										
동향(성인)	좌회전	[Evaluation Not Applicable]										
	우회전	[Evaluation Not Applicable]										

※ [Green] 사고 예방 [Red] 충돌 [Grey] 평가대상 아님
 ※ 보행자와 충돌하면 더 높은 속도에서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음

<후진중 보행자 사고 예방 성능 평가 결과>

시험 속도(km/h)	검침량(%)	보행자	차량	보행자 이동속도(km/h)	
				정지	5
4	25/75	어린이	A	[Accident Prevention]	
			B	[Accident Prevention]	
	50	성인	A	[Accident Prevention]	
			B	[Accident Prevention]	
8	25/75	성인	A	[Accident Prevention]	
			B	[Accident Prevention]	
	50	어린이	A	[Accident Prevention]	
			B	[Accident Prevention]	

※ [Green] 사고 예방 [Red] 충돌 [Grey] 평가대상 아님

- 보험개발원은 “자동차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사고방지 성능이 우수한 AEB의 장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”라고 밝힘

- 보행자 감지 AEB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차량 비율은 22.2%이나, 직진 이외의 좌·우회전 시에도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AEB가 장착된 차량 비율은 2.7%에 그침
- 보행자 사망사고 빈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(48.2%) 다음으로 좌·우회전 차량에 치일 때(21.3%) 많이 발생하는 만큼 보행자 사망률이 높은 사고유형을 예방할 수 있는 AEB 장착을 확대해야 함

출처 : 보험개발원 보도자료(2024.11.08.) 보행자 감지 AEB 장착하면 보행자 사고 사망자 33.9% 감소 가능





현대차, 中 전용 전기차 ‘드라이브GPT’ 탑재...테슬라 잡는다

- 현대자동차가 중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하오모(HAOMO)와 손잡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 전기차(EV)를 출시하면서 중국 시장에 첫 전기차 전용 모델을 내놓음
 -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의 중국 현지 법인인 베이징현대가 하오모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중국 시장 전용 모델을 내년 하반기에 출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
 - 하오모가 보유한 기술 ‘드라이브GPT’는 생성형 AI를 적용한 자율주행 기술로, 1,200억 개의 매개변수와 4,000만 대의 차량 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·사진·동영상을 식별해 판단하는 기능을 갖춘
 - 현대차는 그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아이오닉5 등 전기차 시리즈를 성공시켰지만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전략 모델은 선보이지 않았으나, 주요 시장인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현지 기업과 협력해 준중형급 전기차 전략 모델을 내놓은 것으로 보임

<현대차의 中 전용 자율주행 EV 스펙>

형태	준중형	
자율주행	레벨 2.5	
SW	드라이브GPT	
출시	2025년 하반기	

자료: 업계

- 중국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적극 지원과 함께 장거리 운행이나 고성능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신차 판매 중 50% 이상을 전기차가 차지
 - 소비자들은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레벨2와 레벨3의 채택률이 56%에 달해 글로벌 시장(34%)의 두 배 가량 자율주행 옵션을 선택하는 등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음
 - 특히 중국 기업인 바이두는 이미 레벨4의 상용화를 앞둔 정도로 자율주행 기술에서 앞서 있는 만큼, 현대차는 현지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드라이브GPT를 탑재한 것으로 보임
 - 이에 현대차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현지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시설인 ‘상하이 첨단기술연구개발센터’를 설립해 하오모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쌓은 데이터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도 나설 예정

출처 : 서울경제(2024.11.12.) 현대차, 中 전용 전기차 ‘드라이브GPT’ 탑재...기술 고도화로 테슬라 잡는다





경북 '미니 전기차', 유럽·동남아 골목길 정조준

- 경상북도가 유럽 및 동남아시아 골목시장 선점을 위해 목적기반차량(PBV)으로 불리는 전기경상용차 제조 기업과 손잡고 중소벤처기업부에 PBV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을 신청
 - 특구 지정을 위해 경상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 외에도 전기이륜차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포항 베리워즈, 유럽시장을 공략 중인 대기업 H사, L사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이륜자동차제작자협회 등도 참여
- 경상북도는 PBV 제조 경쟁력을 갖춘 기업군과 연구·지원기관과 함께 드림팀을 구성하여 글로벌 진출 잠재력을 확보
 - 경상북도와 베리워즈는 캄보디아에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충전 인프라를 보급하고 탄소배출권을 가져오는 글로벌 협력 사업을 진행 중이고
 - 특히 포항에 본사를 둔 베리워즈는 2020년 캄보디아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해 이륜차 생산 공장을 준공하여 올해 전기이륜차 8,000대를 공급했으며 100여 개 충전스테이션을 구축 중
 - H사는 PBV의 핵심 구동 기술과 관련한 2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
- PBV는 속도 기준으로 소형 전기차 아래 등급인 25~45km/h의 골목 전용 경량형 모빌리티로 관광 및 물류 운송에 특화되어 있으며 친환경과 안전, 저비용을 강점으로 시장 급성장 전망
 - 내년 말 유럽안전기준(EN17860)이 확정되면 유럽 PBV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으로, 경상북도는 특히 유럽과 동남아 관광과 동남아 활어회 수송 등 물류용 PBV 시장을 노리고 있음
 - 대형 활어차를 이용할 경우 1회 이용 금액은 활어 양과 관계없이 20~40만 원이지만 400kg IT 수족관을 실은 PBV는 비용이 5~10만 원으로 낮고 배송도 빠름

모
빌
리
티



<PBV와 일반화물차 비교>

	
PBV	화물차
800	4000
30	70
400	1500
가격(만원)	속도(km/h)
적재량(kg)	

자료: 경북테크노파크

- 이에 규제 특례를 통한 경주, 포항, 김천 등지에서 활어 수송과 관광객용으로 국내 실증을 하고 베트남 등 국외 실증도 마치며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

출처 : 한국경제(2024.11.13.) 경북 '미니 전기차', 유럽·동남아 골목길 정조준



“콜당 3천원 드려요” 우버 택시 치킨게임 시동...불안한 토종 플랫폼

- 글로벌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경쟁 업체를 뒤흔든 뒤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한국에서 펼치며 시장 공략에 힘을 싣고 있음
 - 우버 택시는 2013년 한국 시장 진출 후 토종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에 밀려 철수한 뒤, 올해 초 다시 서비스를 시작하며 최근 택시 기사를 겨냥한 파격적인 현금성 프로모션을 전개 중
 - 우버 택시 앱으로 호출한 콜을 수락한 택시 기사는 평일·주말 및 시간대, 횟수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토·일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5회 콜을 수락하면 2만 원을, 그 외 시간대에는 1만 원을 지급
 - 여기에 더해 이번 달까지는 콜을 수락하고 1분 안에 도착하는 경우 ‘스피드 콜’로 3,000원의 추가 호출료를 지급하고, 연말까지는 기사에게 지급한 프로모션 코드로 승객이 우버 택시를 탑승하면 1명 당 5,000원을 지급
 - 기사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첫 탑승 3회 동안 기본요금(4,800원)을 면제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
- 국내 콜택시 플랫폼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의 ‘카카오’가 사법리스크로 휘청하고 있는 사이 우버는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한 ‘출혈 전략’으로 시장 점유율을 뺏는 전략을 선택
 - 카카오의 월간활성화이용자(MAU)는 1,300만 명에 달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연매출은 6,00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113억 달러(약 15조7,000억 원)의 매출을 올린 우버의 자금력에 비할 수 없으며,
 - 우버는 인도, 브라질 등에서도 비슷한 전략으로 과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시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바가 있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

모
빌
리
티

<우버택시의 출혈 전략과 MAU 추이>



- 국내 산업계에서는 첨단 기술 경쟁 시대에 산업 인프라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산업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규제의 칼날이 국내 기업에만 향해 있다고 지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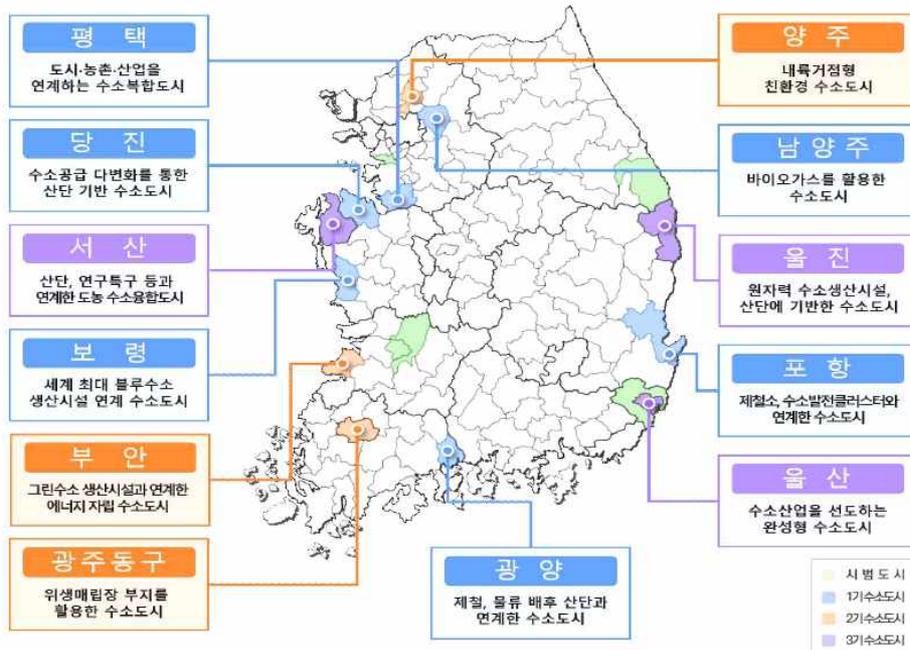
출처 : 서울경제(2024.11.20.) “콜 당 3000원 드려요” 우버 택시의 ‘치킨게임’ 시동...불안한 토종 플랫폼



수소특화단지로 동해·삼척과 포항을 지정, 수소산업 성장거점으로 육성

- 11월 1일 개최된 「제7차 수소경제위원회」에서 ①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방안, ②액화 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, ③수소도시 2.0 추진전략 등 3개 안건이 상정·논의
 - (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방안)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·삼척(수소 저장·운송 클러스터), 경북 포항(수소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)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 단지로 지정, 수소기업의 집적을 유도*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
 - * 수도권 기업 이전시 보조금 우대,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, R&D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제공
 - (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) 글로벌 수소 운송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K-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, 부가가치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원천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* 진행 등 적극 지원
 - * '27년까지 실증 선박 건조, '30년까지 육해상 운항을 통한 기술·안전성 검증, '40년까지 대형 운반선 상용화
 - (수소도시 2.0 추진전략) 수소시범도시('20~'24)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내 친환경 수소 생산시설 확대, 수소연료전지의 설치, 수소교통 인프라 확충 등 기존 수소도시를 고도화하고 12개 수소도시 사업을 신규 추진

<12대 수소도시 조성>



- 정부는 생산·유통·활용 등 수소 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수소 경제 선도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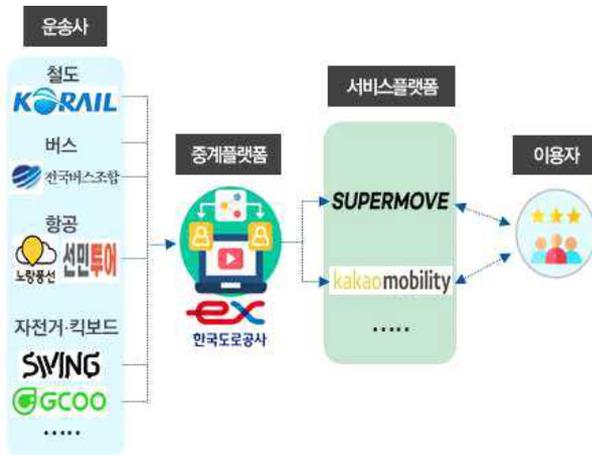
출처 :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(2024.11.01.)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 보도자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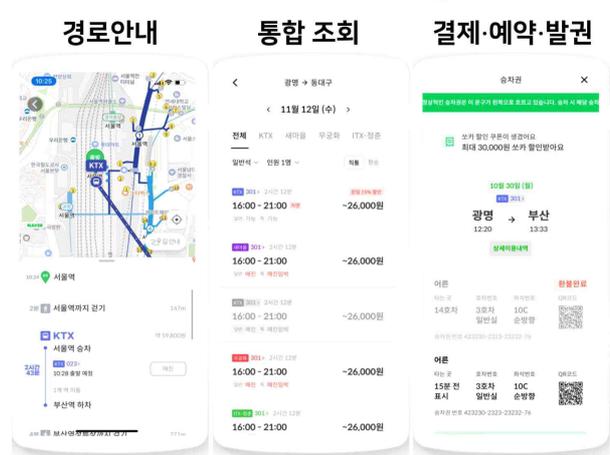
철도·항공·버스 등 검색부터 결제까지 ‘K-MaaS’로 한 번에

- 국토교통부는 10월 28일 철도·항공·버스·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K-MaaS(K-Mobility As A Service) 서비스를 본격 개시
 - K-MaaS 서비스는 슈퍼무브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경로 상에 철도·항공·버스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실시간 시간표 조회부터 예약·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함
 - 한국도로공사가 중계 플랫폼사업자로 참여하여 여러 운송사*의 정보를 통합·중계하고,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(슈퍼무브)는 이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
- * 철도(코레일), 항공(노랑풍선·선민투어), 시내버스(TAGO), 시외버스(버스연합회), 개인형 이동수단(지바이크) 등

<K-MaaS 추진체계 개념도>



<K-MaaS ‘슈퍼무브’ 앱 이용 화면>



- 국토교통부 측은 K-MaaS의 교통분야 서비스 앱을 개시한 데 이어 향후 교통과 관광·숙박 등을 연계한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
 - 이를 위해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 추가 공모를 실시해 민간에서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,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앱을 개발·출시할 계획
- 국토교통부 측은 “K-MaaS는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,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서비스로서, 평소 이동이 많아 다양한 교통수단이 필요하거나 평소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”이라며
 - “앞으로, K-Maa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지속 확대하고, 지자체의 관광 정보를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힘

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2024.10.28.) 철도·항공·버스 등 검색부터 결제까지 ‘K-MaaS’로 한 번에





민간에서도 사고기록정보 분석 가능해진다

- 국토교통부는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개정안이 11월 14일(목)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힘
-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(EDR)*의 기록정보를 추출하는 사고기록 추출장비를 민간에도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제조사자의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·판매를 의무화함
 - * 사고기록장치(EDR, Event Data Recorder): 자동차 사고 발생 시, 사고 전·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,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·기능
 - 그간 일부 자동차제조사자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·판매하지 않아 자동차제조사자를 통해서만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,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사고기록추출장비를 구매하여 사고 기록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,
 -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거짓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여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
-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
 - 현재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는 자동차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운행 안전장치로서 차선이탈 예방장치 2종과 전방충돌 예방장치 2종 등 총 4종이 있으나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는 없음
 - 이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
 - 이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지원하는 한편, 운전자의 운행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안전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,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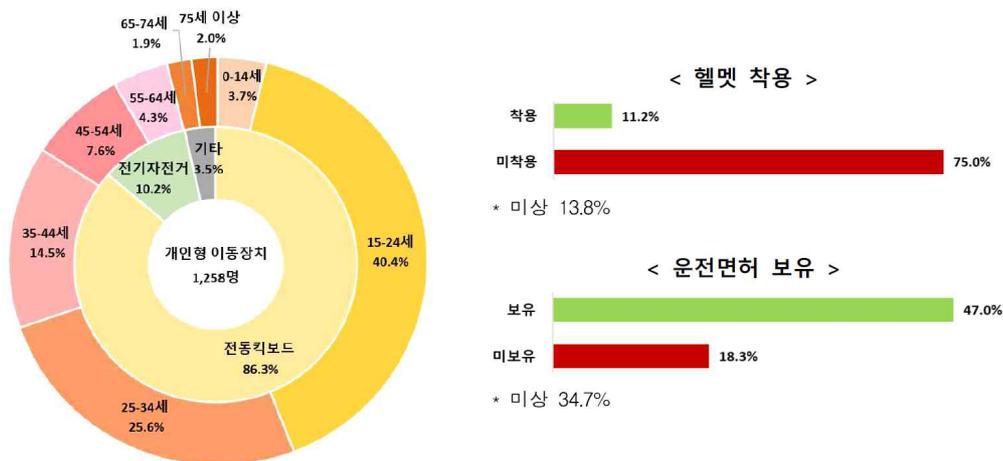




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응급실 손상 환자 5명 중 2명은 15-24세, 대부분(75.0%) 헬멧 미착용

- 질병관리청은 각종 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손상을 예방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국내 손상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「손상 발생 현황 : 손상 팩트북 (INJURY FACTBOOK) 2024」(이하 ‘손상팩트북’)를 발간
 - 손상팩트북은 손상으로 인한 사망, 입원, 응급실 내원 환자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손상 발생 규모, 위험요인, 취약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시
- 특히 이번 손상팩트북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 병원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제로 실시한 간이조사 결과를 담아 처음으로 공개
 -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환자는 총 1,258명으로, 15-24세가 40.4%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
 - 손상환자의 대부분은 전동킥보드(86.3%)를 이용했고, 전기자전거는 10.2%
 - 손상환자 중 헬멧 미착용자(75.0%)가 착용자(11.2%)보다 6.7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
 - 손상환자의 절반 가량(47.0%)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8.3%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(기타·미상 34.7%).

<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손상환자의 특성>



-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은 헬멧 등 안전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큰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
 -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는 ‘개인형 이동장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’을 개발하고 있고, ’25년도에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SNS 등을 통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

출처 : 질병관리청(2024.10.31.)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응급실 손상 환자 5명 중 2명은 15-24세, 대부분(75.0%) 헬멧 미착용





‘판교~광화문 15분 시대’로... 2025년 드론택시가 한강 누빈다

- 서울시는 11월 11일 UAM·드론·AI 신기술 협력 콘퍼런스에서 ‘서울형 도심항공교통(S-UAM) 미래 비전’을 발표하며 2030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힘
 - 내년 상반기 여의도와 한강 일대에서 실증사업이 시작되며 드론 택시 등 신개념 교통수단이 한강 물길을 따라 서울 상공을 비행
 -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본 사업이 완료될 2035년 이후부터는 드론을 타고 광화문과 경기 성남 판교까지 15분,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는 25분 만에 갈 수 있을 전망
- 운행 노선은 ‘실증-초기-성장-성숙’ 4단계에 따라 확대 증설될 예정
 - 현재 실증 단계에서는 △킨텍스(고양)~김포공항~여의도공원 △잠실~수서역 등 2개 구간에서 진행되면서 기체, 운항 관제 등 전반적인 운항 안전성을 검증
 - 초기 상용화 단계(2026~2030년)에는 김포공항~여의도~잠실~수서 등 한강 전 구간을 순회하고 2030~2035년에는 한강과 4대 지천을 연결해 수도권에 있는 광역 노선을 구축
 - 사업 성숙기에 접어드는 2035년 이후엔 주요 도심을 연계한 간선 체계·수요자 맞춤형 노선을 완성

<서울형 도심항공교통(S-UAM) 미래비전 개요>

연도	2024년	2025년	2026년	2030년	2035년
단계	상용화 준비기	시범사업	1단계	2단계	3단계
내용	S-UAM 상용화 추진전략 마련	UAM 운항 테스트	여객운송 시범운행	광역노선체계 구축	UAM 네트워크 완성

자료: 서울시

- S-UAM 체계가 완성되면 3차원 입체교통서비스가 실현되고 도시 간 연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‘메가시티’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
 - 수도권 내 통행시간의 획기적인 절감으로 연간 2조2,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되며 수도권 운송 시장 규모 확대에 4조 원, 서울시내 버티포트 구축으로 1조2,000억 원 등 수조 원대 파급 효과가 예상
- 서울시 측은 S-UAM 미래 비전을 통해 도심 이동의 자유가 현실로 거듭날 것이며 서울시 세계적인 3차원 입체 교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힘

출처 : 세계일보(2024.11.11.) ‘판교~광화문 15분 시대’로... 2025년 드론택시가 한강 누빈다





‘하늘 나는 택시 현실화’ 두바이, 에어택시 정류장 건설 시작

- 11월 12일(현지시간) 두바이 왕세자인 셰이크 함단 빈 모하메드 반 라시드 알막툼은 이날 에어택시 정류장 건설이 시작됐다고 발표
 - 3,100㎡ 면적에 전용 이착륙 구역, 항공기 충전소, 주차장을 포함한 이 시설은 연간 4만2,000회 운항을 통해 17만 명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게 될 전망
- UAE는 두바이에 총 4개의 정거장을 만들 예정이며 2026년에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
 - 두바이 국제공항, 도심, 두바이 마리나, 팜 주메이라 등 4곳에 만들 계획으로, 두바이 공항 인근에 건설되는 것이 첫 번째 정류장이 될 것
- 앞서 UAE 두바이 도로교통국(RTA)은 지난 2월 ‘조비에비에이션’과 운영 계약을 맺고, 2026년부터 두바이에 에어택시 상용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한 바 있음
 - 조비에비에이션은 eVTOL 항공기를 개발·시험하는 회사로, 조비에비에이션의 eVTOL은 최대 160km 거리까지 운항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에 달함
 - 기존 헬리콥터와 비교하면 소음을 크게 줄여 서울 같은 대도시 시내에서도 운항할 수 있으며 실제로 미국 뉴욕 등에서 도심 비행에 성공한 바 있음

<조비에비에이션의 eVTOL 항공기 사진>



- UAE는 에어택시 도입을 통해 두바이를 도시 공중 교통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로, 해당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주요 목적지 간 빠른 이동뿐만 아니라 도심 전망 관람 등 혁신적인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

출처 : 국민일보(2024.11.14.) ‘하늘 나는 택시 현실화’ 두바이, 에어택시 정류장 건설 시작

